

진도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판매확대 위한 업무협약체결

진도군 친환경농업협회-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MOU 지속 가능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상호 상생·균형발전 도모

진도군은 지난 15일 진도군 친환경농업협회,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지역농산물 직거래 유통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군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진도군 친환경농업협회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각 협회의 대표와 회원 등 40여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25개 자치구에 1,824개소 8만여명의 아동이 속해 있고, 전국에서 가장 큰 어린이집연합회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많은 곳이다.
진도군 친환경농업협회는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100% 공급 ▲계약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확보 ▲공급 품목 확대를

위해 계절별 생산능력과 협력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 각 어린이집의 요청하는 규격과 시간에 맞춘 납품을 목표로 진도아리랑물과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희 회장(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은 “직거래 판매확대 MOU를 통해 생산자를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제공·아동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판매 생산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군 중대재해예방TF팀 신설

해남군은 15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에 근무하는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도로관리, 공업 및 가로수 정비, 소각장 및 추모공원,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현업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3대 산업재해 유형인 넘어짐, 끼임, 추락사고 등에 대해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높였다.
현업업무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분기 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인 한국사업안전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인식을 확산하고, 실질적인 현장 관리역량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9월 1일자로 안전도시과에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정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TF팀에서는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점검 ▲중대재해 예방 교육컨설팅 및 홍보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 보건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게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안전한 일터 조성에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흥군, 공무원 노사문화 전국 최고 ‘대통령 기관표창’ 선정

민선8기 출범 더불어 직원 화합 일하는 분위기 본격 시동

장흥군이 ‘202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에서 대통령 표창 기관으로 선정됐다.
장흥군과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상영)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인증 심사에서 상생협력의 공직문화 조성 및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선도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서류심사와 인터뷰, 대면발표를 거쳐 전국 기초지자체와 경향한 결과 최종 5개 지자체 중 대통령 표창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공무원노조와의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갈등의 시작을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노사 갈등을 풀고, 유익적인 소통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맞춰 기부투레이 캠페인을 통한 공무원 숲길 조성, 민족대명절 합동성묘 추진,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을 위한 111회식운동 전개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한



점 또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최근영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조합원의 행복이 곧 군민의 행복이라는 일념으로 앞으로도 조합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직원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밤이 즐거워지는 강진, 관광 틈새 시장 공략

강진군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하는 야간 관광프로그램 시극 ‘한밤의 꿈’ 공연이 9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세계모란공원에서 열린다.
시극 ‘한밤의 꿈’은 강진의 아름다운 야경자원과 연계한 강진의 야간관광 프로그램으로, 강진의 대표 시인인 영랑과 현구의 이야기 등 강진 지역 인물을 소재로 제작되어 강진 관광과 홍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이다.
관광 패키지를 통해 참여한 관광객들은 돛 지리에 앉아서 공연을 보며 강진 도시락과 막걸리를 즐길 수 있으며, 강진군민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영랑생가 뒤편에 있는 세계모란공원에서 시작된다.

강진군은 2020년부터 한국관광공사 지정 야간관광 100선에 3년째 선정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별한 콘텐츠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군은 민선 8기 비전을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연간 관광객 5백만 명 유치를 선정한 추진 중이다. 야간 관광 프로그램 강화는 관광객 대기 유치를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여행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관광 소비를 높여 간다는 전략이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의 거주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비례해 관광객을 유치하면 지역 내 감소한 소비 대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부족한 야간 관광콘텐츠를 강화해 강진의 체류객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공무원 워킹 그룹’ 운영...시책 개발 나선다

완도군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시책 개발을 위한 연구 모임인 ‘워킹 그룹’을 본격 운영한다.
‘워킹 그룹’은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 함양 및 조직 내 협업·소통 분위기 조성, 군정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워킹 그룹원과 연구 과제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 외부 전문가 자문, 정기적 회의 등을 통해 폭 넓고, 창의적인 시책을 연구를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워킹 그룹 연구 과제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구 과제의 효과성 및 실행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완도=기동채주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